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박수연¹, 최만규^{2*}

¹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박사수료, ²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A Meta-evaluative Study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Projects Delegated by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Recognition between Evaluators and Evaluatees

Su-Yoen Park¹, Man-Kyu Choi^{2*}

¹Ph.D. Candidate(ABD), Professor, Division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Korea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Kore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의 점검을 목적으로 메타평가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분석할 때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체계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도출한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 평가활용 등 5개 평가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t검정을 활용하여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인식은 5개 평가요소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평가환경의 적절성, 평가투입 및 그 하위요소, 평가활용의 성과향상 요소는 그 차이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 < .001$), 제도 운영 상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호 이해의 격차 해소를 위해 평가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비롯하여 결과에 대한 충실한 피드백 제공, 또한 이해의 차이를 해소하는 의견교류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표본 크기가 다소 제한적으로($n=79$) 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한계가 있으나, 현재 사업을 수행 중인 현업 담당자와 해당 제도 및 사업 평가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집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제도의 운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향후 성과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 메타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 평가 인식 차이, 민간보조사업

Abstract This study applied a meta-evaluation approach to examin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privately-contracted projects by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focusing on the discrepancies in perceptions between evaluators and evaluatees. Using a systems approach, five evaluation elements were analyzed: environment, input, process, outcomes, and utilization. T-tes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evaluators and evaluatees across all five evaluation factors. These differences were particularly pronounced ($p < .001$) for the following factors: environment(specifically, its appropriateness), input, and utilization(specifically, the performance improvement). To bridge this gap in mutual 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s of evalu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along with reliable feedback on the results. This study informs improvements to the evaluation system, enhancing project performance.

Key Words : Meta-evaluation,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Perception Gaps in Evaluation, Privately-contracted Projects

*Corresponding Author: Man-Kyu Choi (mkchoi@korea.ac.kr)

Received September 27, 2024

Accepted October 20, 2024

Revised October 13, 2024

Published October 28, 2024

1. 서론

2024년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고령인구의 증가가 가져올 의료 관련 재정압박과 코로나 19 이후 도래한 경제 위기로 건강 격차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1]. 이에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에 대한 중점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정책 방향에 대해 2025년 예산을 올해 대비 7.4% 증가한 12조 6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2].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건증기금')은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유일한 정부재원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건증기금의 규모는 2024년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총 예산 약 3조 7천억 원 중 46.1%인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대부분이 이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3]. 이러한 건증기금의 성과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통해 건증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4].

이러한 관리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의 성과평가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미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법정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해 다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5],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별도의 평가는 정부정책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평가자 입장과 실질적 사업 추진에 집중하려는 피평가자 입장 간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경우, 제도 운영 및 평가 결과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성과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6].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메타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할 때,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인식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가 배경과 투입, 과정, 결과 및 환류 영역을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로 설정하고,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인식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에 더해 메타평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여 제도 개선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 특징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되는 모든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개선, 건강한 상태 유지, 건강에 유익한 행위 추구 등 궁극적으로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을 공유한다. 건증기금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중 상당수를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정부 직접 수행 외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운영 방식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7]. 즉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전문성이 강조된 영역에 대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업무평가제도' 외에 별도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사업 및 업무에 대한 법정 평가를 가리키는 '정부업무평가제도'와 비교할 때 그 배경 및 운영 상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적 근거에 의한 차이로써 법령에 근거하여 필수로 시행해야 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와 달리 건증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는 그 실시 및 평가 참여에 강제성이 없다[4]. 둘째, 평가 대상 예산 단위의 차이로써 정부업무평가제도는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비교를 위해 정부예산 분류 상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건증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는 정부 예산 상 가장 작은 단위인 내역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은 기능적 측면으로 건증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는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의무사항인 정부업무평가제도와 달리 그 결과로 인하여 사업 존폐 또는 예산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제도는 강제력 없이 오직 성과점검 및 결과개선을 위한 내용적 환류를 위해[8]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2 메타평가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건증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가 사업성과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메타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평가 가치가 중요해질수록 제도개선 및 평가수준 향상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필요성이 함께 높아지는 연구 방식이다[9]. 메타평가는 1960년대 정부의 역할 확대로 정부 주도 사

업이 급증하며 이의 관리를 위해 평가 또한 확산되었으나, 그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에 활용되지 못한 채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10].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 문제나 이해관계자 개입 등으로 객관성을 잃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하락하면 그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질관리가 중요하다. 관점이며 이를 진단하기 위해 메타평가 방법이 고안된 것이다[11].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그 질, 타당성, 유용성 등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평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법이다[12].

메타평가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평가요소와 실행모델이 개발 및 제안되어 왔다. 국내외 주요 학자들이 메타평가에 사용한 평가 구성 요소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Prior Research on Meta-Evaluation

Researcher	Evaluation Areas
Larson & Berliner (1983)[13]	Process, Outcome, Utilization
Stufflebeam(1983) [12]	Framework : 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Criteria : Technical adequacy, Utility, Efficiency
Scriven(1991)[11]	Standards, Design & Methodology, Findings & Report, Evaluator, Evaluation Value & Utilization
Hong(2002)[14]	Context, Implementation, Outcomes, Utilization
Hwang et al. (2009)[15]	Context, Resources, Process, Outcomes, Utilization
Yoon & Cho (2017)[16]	Input, Process, Outcome, Utilization
Lee et al. (2018)[17]	Resources, Implementation, Result & Utilization
Jin & Cho(2020)[18]	System, Implementation, Results
Kwack & Park (2021)[19]	Input, Process, Outcome

국내 메타평가 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 점검을 목표로 한다. 복권기금사업[14], 국가연구사업[15], 공적개발원조사업[16], 국가기반체계[17], 지방재정사업[1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19]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평가가 활용되었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건강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메타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보다

심층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메타평가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평가 인식 차이

평가제도의 점검은 평가를 주관하고 평가를 추진하는 입장은 물론이고,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평가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개선점을 파악하여 운영 중인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평가자와 피평가자는 점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비교함으로써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교 과정을 통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입장과 이해 차이를 확인하고 인식차이를 줄여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추진한 제도가 비로소 효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20].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인식 차이는 평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상호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낮춰 궁극적으로 제도 정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21].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와 평가 전문가 간의 인식 차이를 메타평가 영역별로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도 참여자의 각 입장 별로 확인하고 이를 조율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4 메타평가에 대한 기대

메타평가가 기존 평가제도가 형식적 과정에 그친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만큼, 메타평가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메타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통해 평가 참여자들이 무엇을 개선하고자 기대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Schwandt(2002)는 평가 실천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특히 평가와 관련하여서 이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평가 프로그램 개선, 이해관계자 소통 증진, 평가자 전문성 개발, 결과 활용 및 환류 기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한 바 있다[22].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메타평가를 통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요소가 어떤 영역인지 직접 질문하는 경우도 있으나[18], 이원재(2016)은 앞서 Schwandt(2002)의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던 기대요소들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개발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기대를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메타평가의 결과로서 가지는 기대에 어떤 메타평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23].

본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자들이 메타평가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고 어떠한 평가 요소들이 기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향의 도출에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메타평가 요소 개발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평가영역 및 문항을 참고하여 평가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순환적 관계를 통해 성과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둔 체제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메타평가 요소를 개발하였다. 그 간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평가에 대해 메타평가 방법을 적용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평가 대상의 유형에 따라 이를 개별정책(예: 규제혁신)을 대상으로 평가하느냐, 기관성적을 평가(예: 공공기관경영평가)하느냐, 또는 사업단위에서 평가(예: 국가연구개발사업)하느냐로 나뉘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증기금으로 운영하는 민간보조사업 간 성과를 검토하는 평가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에 맞춰 '사업평가' 목적으로 메타평가를 실시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14-16,18].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된 평가요소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평가가 추진되는 맥락과 배경에 대해 '평가환경(context)', 평가운영 관리 및 평가 관련 자원 투입에 대해 '평가투입(input)', 평가가 실행되는 조건과 안정적 운영에 대해 '평가과정(process)',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와 결과충실도 등에 대해 '평가결과(outcome)', 성과제고를 위한 피드백과 결과가 성과제고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평가활용(utilization)'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요소별 평가문항은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영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을 한 경우 해당 평가요소의 문항으로 이를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평가자

가 구성한 평가요소 및 문항 구성안은 건증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에 평가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과 건증기금 민간보조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담당자 2인에게 내용을 검토 받은 뒤 [Table 2]와 같이 확정하였다.

Table 2. Meta-evaluation Structure

Evaluation Dimension (Number of questions)	Meta-evaluation Dimensions (Specific Questions for Assessing Each Dimension)
Evaluation Environment(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rity(Legal System, Purpose) • Appropriateness(Implementation Plan, Timing, Stakeholder Consultation)
Evaluation Input(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aluation Management(Evaluator Expertise/ Fairness/Communication) • Resource Sufficiency(Budget/Personnel Support)
Evaluation Process(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lementation Conditions(Quantity/Quality of Data, Time adequacy) • Implementation Soundness(Quantitative/Qualitative Indicators Suitability, Training Opportunities, Staff Expertise)
Evaluation Result(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ult Acceptance(Appeal Process, Acceptance by Staff) • Outcome Fidelity(Report Completeness, Identification of Strengths and Weaknesses)
Evaluation Utilization(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edback(Public Disclosure, Utilization by Staff, Appropriateness of Disclosure Scope) • Integration of Results(Follow-up Actions, Integration into Budget/Personnel/Operations) • Performance Enhancement Effect(Individual/Organizational/Project)

3.2 조사대상

건증기금 사업과 관련한 성과평가 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평가자) 및 사업 담당자(피평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3년 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에 참여한 평가자(대학교수 등)는 약 30명에 불과하여, 양적 분석을 추진하기 위해 건증기금에 대해 알고 있으며 건증기금사업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된 정부업무 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20명을 추가하여 총 50명에게 참여를 요청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부부처 사업은 정부회계 상 세부사업 단위에서 1인 혹은 복수가 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의 하위인 내역사업으로서 민간보조사업 또한 이들이 관리한다. 각 부서 업무 분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조직도 상 2024년 9월 기준 건증기금 세부사업

(2024년 39개)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담당자 약 50 명에게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조사는 2024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3.3 측정도구 및 방법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도출한 메타평가 요소 및 하위요소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문항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평가환경(5문항), 평가투입(5문항), 평가과정 (7문항), 평가결과(4문항), 평가활용(10문항)으로 구성되며 해당 문항은 연구자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한 문항 및 전문가 검토 과정을 통해 개발하여 확정하였다.

또한 메타평가 구성요소 외에도 평가참여자들이 메타평가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이원재(2016)의 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평가기대’에 대한 6개 문항(문제 개선, 효율성 개선, 수용성 개선, 결과 활용 제고, 평가 전문성 확보, 결과 환류 기능 강화)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질문 내 평가의 명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파악하는 질문 외 모든 질문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3.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시행 전 연구자가 소속된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KUIRB-2024-0248-01)을 받은 후 추진되었다.

3.5 자료분석

IBM SPSS Statistics(버전 2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메타평가 영역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평가자 및 피평가자 간 평가영역별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메타평가 요소가 평가기대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 평가자 39명, 피평가자 40명, 총 79명이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전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표본 규모가 다양한 양적 분석을 수행하기에 다소 제한적

일 수 있으나 평가자를 건증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 및 정부업무평가제도 경험자 등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고, 또한 피평가자 역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평가를 받고 있는 현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pondents

Category	Subcategory	Evaluator		Evaluee		Total	
		N	%	N	%	N	%
Overall	-	39	100	40	100	79	100
Sex	Male	29	74.4	13	32.5	42	53.2
	Female	10	25.6	27	67.5	37	46.8
Institution Type	Government Ministry	-	-	29	72.5	29	36.7
	Public Institution	1	2.6	3	7.5	4	5.1
	Academic Institution	2	5.1	0	0.0	2	2.5
	Private Organization	1	2.6	6	15.0	7	8.9
	University	35	89.7	1	2.5	36	45.6
	Other	0	0.0	1	2.5	1	1.3
Evaluation Participation Period(year)	For 1 year	11	28.2	16	40.0	27	34.2
	For 2 years	12	30.8	8	20.0	20	25.3
	Yealy	16	41.0	16	40.0	32	40.5
Number of Evaluation Participations	1	15	38.5	18	45.0	33	41.8
	2	10	25.6	16	40.0	26	32.9
	3 or more	14	35.9	6	15.0	20	25.3

4.2 영역별 결과

각 평가요소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평가환경(3.48)과 평가결과(3.51)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가 관련 규정 및 운영 환경, 그리고 평가결과 보고서의 질과 담당자의 수용성 측면에서 전체 응답자가 타 요소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평가과정(3.09)과 평가활용(3.10) 요소는 평균이 3점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평가 실행의 적절성 및 효율성,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환류 및 활용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평가 결과가 사업 개선 및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활용 요소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for Evaluation Dimensions

Variable	N	Min	Max	Mean	SD
Environment	79	2.00	5.00	3.48	0.68
Input	79	1.40	5.00	3.22	0.77
Process	79	1.57	5.00	3.09	0.75
Results	79	1.50	5.00	3.51	0.71
Utilization	79	1.60	5.00	3.10	0.77

4.3 영역별 평가자-피평가자 인식 차이

4.2.1 평가환경

평가환경 요소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평균 비교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평가환경에 대한 평가자의 평균(3.81)이 피평가자의 평균(3.1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86, p<.001$). 이는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비해 평가환경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평가 제도의 명확성($t=3.33, p<.01$)보다 적절성($t=4.95, p<.001$)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피평가자의 경우, 제도 적절성에 대한 평균 응답이 3점 미만으로 나타나, 제도 운영이 적절치 않다고 인식하는 담당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제도 관리 측면에서 제도의 차년도 시행 전에 운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담당자들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평가 주관자가 제도 적절성에 대한 담당자 체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 T-test Results for Evaluation Environment

Dimension	Group	N	Mean	SD	t-value
(1) Evaluation Environment	Evaluator	39	3.81	0.63	4.86*** (.000)
	Evaluatee	40	3.16	0.56	
(1.1) Clarity	Evaluator	39	4.00	0.76	3.33** (.001)
	Evaluatee	40	3.46	0.67	
(1.2) Appropriateness	Evaluator	39	3.68	0.68	4.95*** (.000)
	Evaluatee	40	2.96	0.62	

Total N=79, ** $p<.01$, *** $p<.001$

4.2.2. 평가투입

평가투입 요소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평균 비교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각 평가요소 간 비교하여 살펴보면, 평가투입 요소이 타 요소에 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t=6.07, p<.001$). 특히, 평가 시 자원의 충분성에 대한 인

식 차이가 매우 컸다($t=4.86, p<.001$). 이때 해당 평가자의 평균 응답은 3.29점인 반면, 피평가자의 평균 응답은 2.39점으로 매우 낮았다. 이는 피평가자가 평가를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투입의 부족은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소화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지 혹은 평가 절대 수 자체가 과도한 상황에서 평가중복 및 시기 중복 문제 등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인지 심층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24].

평가관리 측면에서도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는데($t=5.91, p<.001$), 평가자는 평가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피평가자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Table 6. T-test Results for Evaluation Input

Dimension	Group	N	Mean	SD	t-value
(2) Evaluation Input	Evaluator	39	3.66	0.66	6.07*** (.000)
	Evaluatee	40	2.79	0.62	
(2.1) Management	Evaluator	39	3.91	0.64	5.91*** (.000)
	Evaluatee	40	3.06	0.63	
(2.2) Resource	Evaluator	39	3.29	0.82	4.86*** (.000)
	Evaluatee	40	2.39	0.84	

Total N=79, *** $p<.001$

4.2.3. 평가과정

평가과정 요소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평균 비교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해당 요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자는 대부분 '보통'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반면, 피평가자는 '보통'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평가자는 평가과정 전반이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피평가자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평가 자료의 질, 자료 검토 시간 등 평가 실행 조건에 비해 평가 관련 교육 제공 등 적정성 확보 측면에서 피평가자 평균이 더욱 낮게 나타나 평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피평가자가 평가를 받는 실질적인 상황적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와 관련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고 보다 숙련된 직원이 평가를 담당할 경우 피평가자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자 역시 앞서 평가투입에서 자원의 부족과 함께 평가실행의 안정성에 대한 평균이 타 평가요소에 비

해 다소 낮은 평으로 결과적으로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에게 있어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7. T-test Results for Evaluation Process

Dimension	Group	N	Mean	SD	t-value
(3) Evaluation Process	Evaluator	39	3.36	0.76	3.33** (.001)
	Evaluee	40	2.83	0.65	
(3.1) Conditions	Evaluator	39	3.46	0.88	3.06** (.003)
	Evaluee	40	2.91	0.72	
(3.2) Soundness	Evaluator	39	3.28	0.77	3.15** (.002)
	Evaluee	40	2.77	0.68	

Total N=79, ** $p < .01$

4.2.4. 평가결과

평가결과 요소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평균 비교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평가결과 요소의 경우 다른 평가영역에 비해 피평가자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여전히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유의한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t=2.52, p < .05$). 또한 평가 결과 보고서의 완결성과 정보 제공 수준의 충실도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인식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2.79, p < .01$). 이는 평가 결과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 피평가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8. T-test Results for Evaluation Result

Dimension	Group	N	Mean	SD	t-value
(4) Evaluation Result	Evaluator	39	3.71	0.68	2.52* (.014)
	Evaluee	40	3.31	0.70	
(4.1) Acceptance	Evaluator	39	3.71	0.68	2.52* (.014)
	Evaluee	40	3.31	0.70	
(4.2) Fidelity	Evaluator	39	3.67	0.79	2.79** (.006)
	Evaluee	40	3.16	0.81	

Total N=79, * $p < .05$ ** $p < .01$

특히,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그 개선점이 담기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평가자 입장에서 이의 차이를 보다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관리자와 함께 평가 결과와 내용을 서로 점검하여 결과의 타당도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2.5 평가활용

평가활용 요소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평균

비교 결과를 [Table 9]에 제시하였다. 평가활용은 피드백, 결과통합, 성과향상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비해 평가활용 요소와 그 하위요소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t=2.29, p < .05$).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피드백과 결과통합 측면에서 평가자가 피평가자보다 평균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성과향상 요소에서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t=3.67, p < .001$). 평가자는 평가를 통해 개인, 조직, 사업의 성과가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피평가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Table 9. T-test Results for Evaluation Utilization

Dimension	Group	N	Mean	SD	t-value
(5) Evaluation Utilization	Evaluator	39	3.25	0.75	2.29* (.025)
	Evaluee	40	2.91	0.74	
(5.1) Feedback	Evaluator	39	3.37	0.93	0.62 (.534)
	Evaluee	40	3.25	0.74	
(5.2) Integration	Evaluator	40	3.22	0.74	1.64 (.103)
	Evaluee	40	2.94	0.77	
(5.3) Enhancement	Evaluator	39	3.32	0.81	3.67*** (.000)
	Evaluee	40	2.53	1.08	

Total N=79, * $p < .05$, *** $p < .001$

피드백 요소를 통해 살펴보면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나 그 결과에 대해 평가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피평가자 역시 이를 수용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평가활용이 실제 개인/조직/사업성과 개선으로 거의 이어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어 이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운영되는 건강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에서 제공하는 피드백을 수용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성과 개선의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지, 혹은 내부적으로 사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이를 개선하기 어려운지, 또는 업무 과중으로 담당자가 평가 이후 성과 개선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기가 어려운지,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큰 한계가 있다.

4.3 평가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평가 요소

본 연구는 앞서 건강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에 메타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평가자와 피평가자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 대한 개선 필요 요

소를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메타평가 결과 활용 관점에서 어떤 요소를 조정할 때 평가 참여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일지 확인하고자 평가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평가에 대한 기대와 관련한 6개 문항의 평균은 3.42점(N=79, SD=0.84)으로, 응답자들이 메타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에 보통(3점) 이상의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소를 확인하고자 5가지 평가영역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1]에 제시하였다.

회귀모형은 전체분산의 68.7%를 설명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 73)=32.042, $p < .001$). 특히 평가결과와 평가활용이 평가기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타평가 관점에서 평가결과가 받아들일만하고 충실하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평가 결과가 잘 활용된다고 느낄수록 메타평가에 대한 그 기대 효과 또한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평가환경은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평가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p = .062$), 평가투입과 평가과정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Evaluation Expectations

Predictor	B	SE B	β	t	p
Constant	-0.14	0.31		-0.46	.647
Environment	0.25	0.13	0.20	1.90	.062
Input	0.16	0.14	0.15	1.17	.246
Process	0.02	0.14	0.02	0.15	.881
Results	0.29	0.14	0.25	2.10	.039*
Utilization	0.36	0.14	0.33	2.61	.011*

* $p < .05$.

$R^2 = .687$, F(5, 73)=32.042, $p < .001$

이는 건증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로서 평가 관리자가 개선 조치를 취할 때 평가결과와 평가활용 요소를 우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에게 이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결과는 표본수의 부족으로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뚜렷한 한계점을 가진다.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수를 산

출 시(유의수준 .05, 중간 정도 효과 크기 .15, 검정력 .80, 독립변수 5개를 기준으로 분석), 최소 92개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 수는 72개로 통계적 검정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정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성과관리 수단 중 하나인 '건증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에 대해 메타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고 이의 함의를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인식 차이에서 바라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체제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 평가활용 등 5개 평가요소를 개발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t검정을 실시하여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현재 시행되는 평가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서로 비교하였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결과 비교에 앞서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가과정과 평가활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아 건증기금 민간경상보조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제도실행 및 결과환류 과정을 우선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 평가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5개 평가요소 전체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였다. 특히 평가환경 하위요소인 적절성, 평가투입 및 그 하위요소 전반, 평가활용 하위요소인 성과향상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평가 제도가 상호 간 소통 및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타평가 결과의 활용 관점에서 평가기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평가결과와 평가활용 요소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의 질을 높이고 그 결과를 실제 사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메타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평가자와 피평가자 차이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 인식 차이는 평가의 효과적인 운영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19]. 특히 피평가자가 평가제도를 불신하게 되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평가를 추진하더라도 사업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비롯하여 결과에 대한 충실한 피드백 제공, 또한 평가자 피평가자 간 이해의 차이를 해소하는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19].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제안하자면, 평가 과정에서 피평가자에게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평가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평가 결과로 제공되는 보고서의 질을 높여 수용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의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특히, 평가활용 부분은 현행 제도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건강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성과 점검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평가활용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공식적 차원에서 피평가자에게 내적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등 대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25].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의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사업 성과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뚜렷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제한적인 표본수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의 범위가 현업에 있으며 해당 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표본 크기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 한계점은 타 선행연구와 달리 메타평가 요소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 추진 여건 상 제약으로 인한 문제로, 향후 연구는 평가요소 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개발 및 검증절차를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분

석을 통해 제도에 대한 문제요소는 확인하였으나 이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지 못 했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향후 질적 연구방법을 추가하여 실제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는 건강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때,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행 중심의 대안을 제안하여 현행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H. C. Kang. (2024). *The 2024 Outlook for Health Care Polic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DOI : 0.23062/2024.01.2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4). *Intensive investment for strong support for the vulnerable and solid medical reform implementation*. [Press release].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883&tag=&nPage=1 (Retrieved September 27, 2024)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4). *Summary of budget and fund operation pla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202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3000000&bid=0010&act=view&list_no=1480297&tag=&nPage=1 (Retrieved September 27, 2024)
- [4]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n.d.). Performance evaluation of private subsidy project. <https://www.khepi.or.kr/ace/menu.es?mid=a30101000000> (Retrieved September 27, 2024)
- [5]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n.d.).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5 (Retrieved September 27, 2024)
- [6] H. S. Hwang & M. S. Cho. (2017). *A Study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Its Effectiveness* (2016-1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7] E. S. Savas. (1982).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How to shrink government*. Chatham House

- Publishers.
- [8] A. N. Kluger & A. DeNisi. (1996). The effects of feedback interventions on performance: A historical review, a meta-analysis, and a preliminary feedback intervention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9(2), 254-284.
DOI : 10.1037/0033-2909.119.2.254
- [9] S. Y. Lee, J. M. Lee, Y. K. Jung & C. S. Cheung. (201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of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using meta-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4(2), 203-210.
DOI : 10.15683/kosdi.2018.06.30.203
- [10] Rho, Y. J. (2005). The impedimental factors to policy evaluation utilization in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3(4), 245-275.
- [11] M. Scriven. (1967). The methodology of evaluation. *Monograph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on Curriculum Evaluation*, 1, 39-83. Rand McNally & Company.
- [12] D. L. Stufflebeam (1983). Metaevaluation: Concepts, standards, and uses. *Evaluation Practice*, 4(1), 17-36.
- [13] R. Larson & D. Berliner. (1983). A review of meta-evaluation studies. *Educational Researcher*, 12(1), 14-17.
- [14] H. D. Hong. (2002). The Meta-evalu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An Empirical Investigation*, 14(4), 867-892.
- [15] M. K. Hwang, W. J. Yoo, D. W. Chung & J. B. Moon. (2009). The Design of Model for Analysis Efficiency of the National R&D Program Evaluation System by applying Meta Evalu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4(4), 1-25.
DOI : 10.16972/APJBVE.4.4.200912.1
- [16] S. J. Yoon, & T. J. Cho. (2017). *Meta-Evaluation to the Self-Evaluation in ODA Programs*.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24(2), 27-60.
DOI : 10.17089/KGR.2017.24.2.002
- [17] S. Y. Lee, J. M. Lee, Y. K. Jung & C. S. Cheung. (201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of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using meta-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4(2), 203-210.
DOI : 10.15683/KOSDI.2018.06.30.203
- [18] J. H. Jin & K. Cho. (2020). Meta-assessment study on local governmen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Focusing on the evaluation results of 2016-2019.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15(2), 35-63.
DOI : 10.15683/kosdi.2018.06.30.203
- [19] C. G. Kwack & H. S. Park (2021). Formative metaevaluation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 system of the public institution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8(4), 89-112.
DOI : 10.46415/jss.2021.09.28.4.89
- [20] S. Y. Choi, D. S. Lee, D. Y. Hong & M. J. Park. (2019). *Policy alternatives for comprehensive evaluation of central government contracting out* (2019-0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21] C. G. Yi. (2009). Empirical Analysis of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Research Institutes: Focused on Differences of the Perception among Participants.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2(1), 36-69.
- [22] T. A. Schwandt. (2002). Evaluation practice reconsidered. Peter Lang Publishing.
- [23] W. J. Lee. (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for rural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meta-evaluation*.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 [24] S. J. Yoon, & J. S. Kim. (2017). An Analysis on Korea's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 16(4), 57-82.
- [25] H. C. Choi, Y. D. Kim & C. H. Yoon. (2023). A Study on Appraisers and Appraisees' Awareness for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and System Improvement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23(1), 229-258,
DOI : 10.46330/jkps.2023.3.23.1.229

박수연(Su-Yeon Park)

[정회원]



- 2010년 5월 ~ 2015년 2월 : 서울연구원(연구원)
- 2015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박사수료)
- 관심분야 : 보건정책, 보건조직관리, 성과관리
- E-Mail : suyeon10@korea.ac.kr

최만규(Man-Kyu Choi)

[정회원]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관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보건의료경영, 보건조직관리
- E-Mail : mkchoi@korea.ac.kr